도의회, 후반기 원구성 완료

운영위원장 - 김대오 의원 오늘부터 임기 시작

제11대 전북도의회 후반기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 선출이 마무리됐다.

도의회는 지난 30일 제37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운영위원장에 김대오(익산1) 의원을 선출했다.

김대오 위원장은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잘하기 위해서는 의원 개개인의 의정활동도 중요하지만 의회 차원의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의 묘가 반드시 따라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원칙을 지키는 의회, 앞서가는 의회, 공부하는 의회, 투명하고 건강한 의회, 소통이 원활한 의회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위원장은 "의회의 위상과 품격은 집행부를 견제하고 균형을 지키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며 "봐주기나 주고받기식의 관행을 과감하게 깨트리고 선진의회 벤치마킹을 통해 도움이 되는 제도는 적극 도입해 의원들의 역량이 저절로 길러지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운영위원장을 선출함에 따라 제11대 도의회 후반기 원구성이 완료됐다.

전북도의회 후반기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이 지난 30일 한자리에 모여 맞손을 잡고 있다.(사진 왼쪽부터 최영일, 이명연, 김대오, 황영석, 송지용, 문승우, 김철수, 이정린, 김희수 의원)

의장 송지용(완주1) 의원, 부의장 최영일(순창)·황영석(김제1) 의원, 운영위원장 김대오(익산1) 의원, 행정자치위원장 문승우(군산4) 의원, 환경복지위원장 이명연(전주11) 의원, 농산업경제위원장 김철수(정읍1) 의원, 문화건설안전위원장 이정린(남원1) 의원, 교육위원장 김희수(전주6) 의원이다.

후반기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 임기는 7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다. /유호상 기자

"코로나19로 어려운 농어민 위한 대책 시급"

민주 이원택 의원,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서 여가위에서 "새만금잼버리 성공 개최 머리 맞대야"

21대 국회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위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와 여성가족위원회(이하 여가위)의 상임위원회가 개최되면서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의 활약상이 주목된다.

이원택 의원은 전북 출신 의원 중 유일한 농해수위와 여가부 위원으로 농로 전북과 새만금잼버리대회의 성공적 개최 등 현안에 대한 대책 마련에도 적극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 의원은 지난 30일 개최된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코로나19로 농민과 어민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 경제활력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농어촌 지역 농·축산·어업의 소비증대 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빅데이터 인프라 구축과 스마트농업 전문가 육성, 내수면어업 소비진작 등에 대한 항목의 신속한 대응을 촉구하며 "이번 추경이 농,어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다양한 지원대책이 마련될 수 있는 단비 같은 역할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여가위 위원을 겸직하고 있는 이 의원은 여가위 전체회의에서도 "여권신장과 청소년, 다문화가족 문제해결, 새만금잼버리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머리를 맞대 의논하고 총의를 모아주시길 당부드린다"면서 "새만금세계잼버리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정부 차원의 대응"을 요구했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 30일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비록 야당의 불참 속에서 회의가 진행됐지만 일하는 국회를 완성시켜 나가는 것이 국민이 바라는 진정한 국회의 모습일 것"이라고 말하며 "오늘은 제21대 국회가 개원한지 꼭 한 달 째 되는 날로 일하는 국회, 국민이 신뢰하는 국회로 나아가기 위해 앞으로도 국회의원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도의회 신임 예결특위 구성

위원장 - 김만기 의원 부위원장 - 진형석 의원 총 11명으로 오늘 임기 시작

김만기 의원

진형석 의원

전북도의회는 지난 30일 제37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김만기의원을 비롯한 11명위원을 제11대 3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했다.(강용구, 국주영은, 김대중, 김만기, 김이재, 박희자, 조동용, 진형석, 최영규, 최영심, 최훈열 - 가나다순)

이날 선임된 예결위 위원들은 제1차 회의를 갖고 위원장에 김만기(더불어민주당, 고창2)의원을, 부위원장에 진형석(더불어민주당, 비례)의원을 선출하고 제10대 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본격 시작한다.

3기 예결특위위원장으로 선임된 김만기 위원장은 고창군 시민연대 공동대표, 고창군 재향군인회 이사, 제11대 도의회 전반기 농산업경제위원회 위원,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역임하였다.

7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제11대 3기 예산결산위원회는 추경예산 심의 및 2021년 본예산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심도있는 연찬회를 갖고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예결위 활동에 돌입한다. /유호상 기자

감염병 의심되면 '1339'로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지역 현안 적극 대응 성과 평의원 돌아가 주민 참뜻 대변"

송성환 도의장 이임

제11대 전북도의회 전반기 송성환 의장 이임행사가 지난 30일 오후 사무처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도의회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서 송 의장은 "의장직을 대과 없이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보내주신 한준수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전반기 의장으로 짧지 않은 기간 초심을 지키며 도민을 위해 일하는 역동적인 의회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돌아봤다.

송 의장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라든지 한국농수산대학, 한국국토정보공사 등 전북혁신도시에 입주한 공공기관의 기능분산 시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주요 현안 관련 법률 제정을 촉구한 활동과 인사청문제도 도입 등을 성과로 꼽고 싶다"고 밝힌 후 "앞으로는 평의원으로 돌아가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주민의 참뜻을 대변하는 지방자치 본연의 목적에 더욱 충실하겠다"고 말했다.

도의회 사무처는 이날 송 의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유호상 기자

공공의료 국가 책임 강화

민주 김성주 의원, 국립공공보건의료대 설립 법안 대표발의

의료서비스의 쏠림현상을 해소하고 필수·공공의료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국립공공의대 설립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성주 의원(전주병)은 지난 30일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제정안은 지역과 국가의 공공보건의료를 선도해 나갈 사명감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필수의료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높이고 감염병 대응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 설립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제정안에 따르면 국가는 공공의료인력 양성을 위해 의학전문대학원과 보건대학원 등을 포함한 공공의대를 설립하는 한편, 공공의대에 입학한 학생들은 학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게 되며 학생들은 법령에 따른 실습기관에서 교육을 받게 될 예정이다.

또한 졸업 이후에는 10년간 의료취약지와 필수의료분야에서 의무복무를 하게 되며 군복무기간 및 전공의 수련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포함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의사인력의 지역근무 기피와 일부 진료과목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지방의료원과 지역,응급외상센터 등에서는 아무리 높은 보수를 지급해도 의사를 구하기 힘들며 산부인과, 응급, 외상 등 필수의료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지역이 늘고 있는 현실이다. 특히 2018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의사 15만여명 가운데 공공보건의료기관 의사는 1만6,000여명으로 10% 수준이다.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한 역학조사와 접촉자 관리,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담당하는 역학조사관 중 의사 출신은 부족한 실정이며 선별진료소와 감염병 전담병원에서 근무하는 의료인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장기간 근무하면서 번아웃 증상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김성주 의원은 "장기적 전망에서 전문성을 갖춘 공공의료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함으로써 내과, 소아과, 산부인과, 응급외상 등 필수의료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높이며 지역간 의료서비스 격차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